

# 현대기아차 신차 대공습



기아차 신형 K5

**7월 쏘나타·K5 이어 9월엔 뉴 아반떼  
신형 스포티지, 3분기 RV시장 공략  
준중형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시장확대  
하반기 국내외 11종...창사이래 최대**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신차 공세로 실적 부진 만회해 나간다. 최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업체의 약진, 중국 시장의 저성장 우려, 신형시장 불안 등 악재로 신차 효과로 정면 돌파해 판매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하반기에 창사이래 가장 많은 총 11종의 차종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출시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올 상반기에 신형 투싼만 내놓았고 기아차는 신차 출시가 아예 없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하반기 신차 라인업은 그야말로 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한 격이다. 준중형, 중형 등 가장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주력 세단을 비롯,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SUV도 포함된다. 아울러 상용차와 친환경차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있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7월에 쏘나타 2016년형 모델과 신형 K5를 동시에 출시했다. 그동안 수입차에 잠식당했던 국내 중형차 시장의 입지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쏘나타의 엔진 모델을 7개, K5는 5개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였다. 새로 선보인 디젤 모델의 연비는 l당 16.8km(16인치 기준)다. BMW 520D의 16.1km/l(17인치), 파사트의 14.6km/l(18인치) 보다도 높아 그동안 연비를 강점으로 내세운 독일 디젤 세단과 정면 대결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분기당 1~2개 신차를 출시하는데 이렇게 많은 모델이 쏟아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쟁 차종들이 한꺼번에 출시된다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하반기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단일 차종 중 최초로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전 세계 판매 모델 중 3위를 기록한 아반떼의 신형 모델도 올해 3분기 중 국내에 선보인다. 신형 아반떼가 출시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엔트리급 시장에서 수입차에 빼앗겼던 점유율을 다시 높이고 글로벌 판매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약점으로 꼽혀 왔던 소형 SUV 시장에서도 신차 공세가 이어진다.

현대차의 해외 전략 소형 SUV인 크레타는 7월 인도 출시를 시작으로 8월 이후 중동,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잇달아 출시돼 급증하는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내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에서 신형 투싼과 신형 스포티지가 선봉에 선다. 국내에 먼저 선보여 큰 인기를 끄는 신형 투싼은 8월 미국, 9월 유럽에 잇달아 출시될 계획이며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도 올해 3분기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돼 카니발, 쏘렌토에 이어 또 한 번의 RV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차 부문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신차가 등장한다. 현대차는 최근 선보인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가 정부 보조금이 확정되는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현대·기아차 최초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선보여 국내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 차급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수입차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한편 판매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꾀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대기아차 자국생산율 1위

### 지난해 44.8%...獨·美 제쳐

현대·기아자동차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글로벌 판매량 대비 자국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생산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 고용 및 소비 유발 효과가 국가 경제 기여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 자동차 연구기관인 포인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비율은 글로벌 생산량 300만대 수준인 9개 주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높은 44.8%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2014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한 800여만대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59만여대를 한국에서 만들었다.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 비율은 비교 대상인 9개 업체 평균(31.2%)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자국 생산량도 독일 폴크스바겐(268만여대)과 미국 GM(209만여대) 등을 제치고 일본 도요타(421만여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자국 생산 비율이 높은 업체는 도요타. 지난해 생산한 1050만여대 중 421만여대를 일본에서 생산해 자국 생산 비율이 40.1%였다. 미국 업체 중에서는 포드가 38.4%로 가장 높은 자국 생산비율을 나타냈으며 97만여대를 자국에서 생산한 PSA는 30.6%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높은 자동차 생산량을 기록한 폴크스바겐은 전체 1056만여대 가운데 269만여대만 독일에서 생산, 자국 생산비율이 25.4%에 불과했다. 2009년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GM의 글로벌 판매량 대비 미국 내 생산량 비율은 21.6%에 그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자동차도 ‘고령화’

### 등록 15년 211만여대... 10년새 7배 늘어

등록된 지 15년을 넘긴 ‘고령’의 자동차가 10년 사이에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등록된 지 15년 이상 된 차량은 총 211만3263대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 6월 고령차 29만1772대와 비교해 7.2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1514만7785대에서 2054만8879대로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등록된 모든 차 가운데 15년 이상 고령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6월 1.9%에서 2015년에는 10.3%로 5배 이상 뛰었다. 10대 중 1대꼴로 15년을 넘긴 차가 달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5년 미만 신차의 비중은 2005년 39.5%에서 올해 38.2%로, 5~10년 미만 차량은 10년 새 37.6%에서 28.6%로 각각 떨어져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차 증가 현상은 국산차 품질이 향상된 데다 내수경기 침체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차를 상대적으로 오래 타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고령차 증가 현상이 국산차에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국산차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5년 이상 고령차의 비중은 국산차가 1.9%에서 10.8%로 급증한 반면 수입차는 4.5%에서 2.8%로 줄어 들었다. 한국 자동차의 품질 향상은 외국의 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미국 최대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가 지난 6월 내놓은 2015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기아차는 21개 일반브랜드 가운데 1위, 현대차는 2위에 올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10년 넘은 차를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더 오래된 차도 잘 달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품질 향상의 영향으로 평균 7~8년 정도였던 차량 교체주기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 항색점선 5분 이내 정차...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Q)주정차 금지 구역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A) 도로 옆 주정차시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항색 점선은 주차가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항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

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 허용시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꼭 확인해 합니다. 2중 항색 실선은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절대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p><b>광주일보</b>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1>개업·성업 안내</h1>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b>블르메플라워샵</b>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동·서양화·꽃바구니·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p>	<p><b>광주천가꾸기협의회</b>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지 환경 ☎011-602-2883</p>	<p><b>(주)세원모터스</b>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자동차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p>	<p><b>이경숙 갤러리</b>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휴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062)224-2880</p>
<p><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b>광주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b>일등모바일</b> 동구 금남로2가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p>	<p><b>송하한정식</b> 동구 금남로2가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p>	<p><b>서울표구점</b> 북구 중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p>	<p><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p><b>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b>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원) 부대찌개, 찰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p>	<p><b>석당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b>초대화랑</b>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점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p>	<p><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b>똥이레</b>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p><b>토담</b>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b>고전방</b>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b>다나베옴즈</b> 동구 남동 169-4 (총장로 171구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b>천수사백마장군</b>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010-2828-2008</p>	<p><b>미락 식당</b>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반간장게장,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p>	<p><b>오리백년두암직영점</b>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꽃담, 오리 장어탕 ☎062)401-5253</p>